

#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제565호

지면안내

02 보도

수강신청 잔여인원부족으로 신입생 불만 잇따라

03 사회

청년 빠진 청년 주거정책, 집을 넘어 살 곳이 필요한 청년

04 기획

누구보다 분주한 아침

06 문화

정상을 향한 질투의 시선

## 본교 교직과정 2023년부터 폐지된다

### 학생 “교직과정 폐지 사실 몰라”, 본교 “교직과정 폐지 어쩔 수 없어”

지난 2월 23일, 본교는 5주기 교원양성 기관 역량진단(이하 교원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2023년부터 교직이수 제도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본교 교직과정은 융복합디자인학과와 회화과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직과정 폐지 사실을 몰랐던 학생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익명을 요청한 학생은 “본교가 5주기 교원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사실을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교원평가 자료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학교 소식을 학교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 찾아야 된다는 점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채유진(서양화 3) 회화과 정학생회장은 “본교에 따로 전달받은 것이 없다. 대부분

폐지 사실을 모를 것”이라며 “나 역시 뉴스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택(컴공 4) 총학생회장은 “본교에게 결과를 전달 받아 알고 있었다”며 “교직과정이 폐지돼 아쉽다”고 말했다.

교원평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5주기 교원평가는 교직과정이 진행되는 4년제 대학(교대·교원대 제외) 총 154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2023년까지 교원양성정원 3,200여 명이 감축된다고 발표했다.

대학은 평가 결과에 따라 A-E까지 등급이 매겨진다. 교원평가 등급기준은 ▲A등급(800점 이상) ▲B등급(700점 이상) ▲C등급(600점 이상) ▲D등급(500점 이상) ▲E등급(500점 미만)이다. 대학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선발학생 유지(A·B등급), 선발 학생 30% 감축(C등급), 선발 학생 50% 감축(D등급), 교직과정 폐지(E등급) 등을 진행해야 한다.

5주기 교원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교육여건이다. 세부 지표로는 ▲교과교육과정 전임교원 확보율 ▲교과교육과목 교수자 전공일치도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등이 있다. 해당 항목은 지난 4주기 교원평가에서도 동일한 점수를 받은 바 있다.

본교는 전공 교강사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장선영(상상력교양대학 자율교양학부) 교수는 “교수가 미술 및 디자인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강의하기 위해선 미술교육학박사 및 디자인교육학박사를 취득해야 한다”며 “해당 전공 교육학박사 과정을 이수한 교수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교직과정은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본교는 매년 교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에서는 예비교사가 자격을 취득해 임용고사에 합격한 후에 최종 교사로 임용됐거나,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됐을 경우만 교원임용으로 인정한다. 장 교수는 “학생에게 임용고사 대비반, 특강, 선·후배 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학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본교의 교직이수 선발자 수가 교직이수자 승인인원 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낮은 점수를 받은 원인이다. 본교 2018학년도 본선발자는 ▲승인인원 수 59명 ▲선발자 수 27명이며, 2019학년도 본선발자는 ▲승인인원 수 6명 ▲선발자 수 4명이다. 2021학년도 본선발자는 ▲승인인원 6명 ▲선발자 수 4명이다.

본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1학년도 교직과정 공지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결과 안내 글 2개뿐이다. 채 회장은 “본교에 교직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신입생 오티 때, 선배 소개로 처음 알게 됐다”며 “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학생도 대부분 모른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직이수자 수의 미달이 지속되면 교원평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교직과정 이수자가 소수 인원일 경우, 다양한 교직과정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 교육과정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지호(상상력교양대학 교학팀) 차장은 매우 적게 뽑는 디자인 과목 교원 수를 미달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디자인 분야는 교원을 거의 뽑지 않는다. 트랙제 이전에는 디자인대학 학생이 회화과의 복수

전공을 통해 미술 교사 자격증을 뒀다”며 “지금은 불가능해지면서 지원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차장은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할 경우 들어야 하는 전공 강의 수가 다른 학생에 비해 많은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학생은 교직과정까지 전공을 7개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D등급을 받았던 4주기 교원평가 당시 본교는 50%보다 더 많이 정원을 감축했다. 장 교수는 트랙제 도입으로 교직이수 선발자를 어쩔 수 없이 감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7년도 트랙제가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트랙이 학생 선택에 의해 정원이 정해지지 않은 형태로 운영됐다”며 “교육부는 학과별로 정원이 있어야만 교직 승인인원을 부여한다. 트랙제를 운영하고 있는 본교에선 교직과정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승인인원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본교는 2023년부터 사라지는 교직과정을 대신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장 교수는 “23학번 이후에도 학생이 대학 졸업 후 양성형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선수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부 교직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운영하겠다”며 “23학번 이후 현재 운영 중인 2개의 교직 자격증과 관련해 양성형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교는 현재 교직과정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김 차장은 “교직과정 폐지 사실을 따로 공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새 옷 입은 홈페이지

지난 3월 2일, 본교는 새로운 학교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공식 홈페이지, 단과대학 홈페이지 등이 새로 개편됐다.

공식 홈페이지는 외관 디자인이 바뀌고 기능이 추가됐다. 메인화면에는 본교의 목표와 비전을 시각화한 영상이 추가됐다. UI는 앞서 실시한 한성대학교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간결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김준호(홍보팀) 팀원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기능은 자료연동 시스템, 바로가기 기능, 타겟메뉴 등이다.

자료연동 시스템 신설로 사용자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입력한 회원정보를 본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정보화팀) 팀원은 “학생이 홈페이지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기능은 종합정보시스템, e-class, 공지사항 등 페이지를 바로 연결해 준다. 해당 기능은 설문조사에서 대학 메인페이지에 구성되었으면 하는 메뉴 또는 기능의 상위 답변을 모아 구성했다.

타겟메뉴는 한성인, 교직원, 예비한성인 카테고리 구성됐다. 한성인 카테고리는 재학생이 사용하는 공지사항, 출결시스템, 도서관 등으로 연결된다. 교직원 카테고리는 인터넷, 한성웹메일, 한성SMS 등으로 갈 수 있다. 예비한성인 카테고리는 입학처 홈페이지, 한성대학교 공식정보 홈페이지 등으로 접속할 수 있다. >> 2면에 계속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2017. 1. 24**

4주기 교원평가 D등급

**2018~2019**

교직이수자 대폭 감소

2018년 ▲승인인원 수 59명 ▲선발인원 수 27명

2019년 ▲승인인원 수 6명 ▲선발인원 수 4명

**2021. 2. 23**

5주기 교원평가 E등급

**2023~**

2023년 교직이수 제도 폐지

한성대에 봄이왔소!

(2021.3월 현재)

**함께 가입하면 좋아요!**

**i-ONE뱅크**

-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등 수수료 혜택
- 은행방문 없이 적금 등 상품 가입 가능

**일상의기쁨 체크카드**

- 대중교통 100원 할인, 월 최대 1,000원 할인(후불교통 이용 시)
- 주유 카피전점점 10% 할인(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탐앤탐스 등)
- GS 25, CU, 세븐일레븐 5% 할인

**주거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일에 일정 회차의 납입을 하면 청약주택임대 지원금, 주택 구입예치금, 청약대출 지원금, 청약대출 지원금, 청약대출 지원금, 청약대출 지원금

-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저축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날까지
- 적용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가입 기간에 따라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문의 및 상품(서비스)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한성대 출장소(우촌관 중문앞) / 문의 02-745-2611(구내330) 최현영 소장**

“계좌 개설만 하셔도 선착순 200명에게 CU 기프티콘 등 상품권 1만원권이 팡팡!”

권유자 신양지, 김혜원, 장수진

(비대면 QR코드를 카메라로 촬영 시 계좌 신규 가능 (대 면) 내점 시 사은품과 함께 계좌 신규 가능)

**기간** 2021년 3월 2일 ~ 3월 31일까지

**장소** IBK기업은행 한성대출장소 (우촌관 중문앞) ※ 신분증 필수 지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0592호 (2021.02.26) 게시기한 : 2021.03.31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지보장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입출식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예금 총액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억원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서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02-745-2611)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민연립 ☎1332, IBK기업은행 : ☎02-745-2611) · IBK기업은행은 금융정보를 수신, 관리, 운영, 위탁, 위탁사, 개신,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45-2611, e-mail : bfe@ibk.co.kr)

- 연체이자율 :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지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지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환상사법정이자율과 상호금융 기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신용카드 사용, 갱신, 약탈, 해지, 고도의 사적입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수강신청 잔여인원부족으로 신입생 불만 잇따라

## 1차 정정 기간 이후 신입생 수강신청 진행

### 조사를 통해 강의 인원 수 확대 검토할 예정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된 1차 수강신청 기간에 잔여인원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2~4학년 수강신청은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신입생은 2월 26일에 진행됐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수강신청 기간 중 수강이 취소됐다는 글이 계속됐다. IT공과대학 신입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대학수학 b반을 신청했는데 강의를 취소하라는 학교의 연락을 받았다. 본교에게 대책 대신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인원비는 곳을 알아서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며 “학교의 잘못인데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나에게 넘겼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학생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본교의 대처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

다음 수강신청에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운철(학사운영팀) 팀장은 “재학생이 대학수학 b반 수업을 많이 신청해 신입생이 신청 가능한 잔여인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교는 4, 3, 2, 1학년 순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1학년 수강신청은 2, 3, 4학년 1차 정정기간이 지나서 진행된다. 강의는 각 학년별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1차 정정기간에는 학년 정원 상관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수학 b반의 경우, 1차 정정기간에 재학생이 많이 수강신청하면서 1학년 정원이 줄어든 것이다.

대학본부는 “대학수학 담당 교수와 협의를 통해 1학년 학생 정원을 늘렸다”며 “학생의 수강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기존 1학년이 신청할 수 있었던 정원만큼 1학년 인원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수강신청 기간마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강의 수강인원이 적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입생의 글이 올라왔다. 한 신입생은 “수강

해야 하는 강의의 인원이 5초 만에 마감돼 결국 수강신청에 실패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잔여인원이 1명 나올까 말까 한다”고 수강신청의 어려움을 표했다.

신입생은 장바구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채 1차 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바구니 신청기간과 추가모집 기간이 일정상 맞지 않아 신입생은 장바구니를 이용할 수 없다.

본교는 수강신청 기간 전에 장바구니 제도를 시행한다. 학사운영팀은 장바구니 제도로 수강신청 전에 학생의 강의 수요를 미리 조사해 반반 개설이나 강의실 조정 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학생은 수강신청 잔여인원 조회를 통해 총 잔여인원과 그 강의를 담은 장바구니 인원을 볼 수 있다. 올해 재학생 장바구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신입생 최종 정시 합격자 발표일은 2월 27일이다.

조 팀장은 “2, 3, 4학년 수강신청 기간에는 신입생이 아직 입학 등록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입생이

장바구니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며 “수요를 완벽히 파악하기 힘들어 수강신청 잔여인원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본교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강의 수강신청 정원에서 신입생 정원을 빼고 수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팀장은 “1차 정정이 끝나고 나면 신입생 수강 정원을 늘려 신입생이 피해보는 일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주(학사운영팀) 팀원은 “해당 문제는 1학기 때만 발생하는 문제”라며 “2학기는 1학기 와 달리 4, 3, 2, 1학년의 1차 수강신청이 모두 끝난 후 1차 정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강의를 필수로 들어야 되는 학년이 다른 학년으로 인해 수업을 못 듣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강의 수강 정원을 늘려 잔여인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100% 온라인 강의 인원을 늘려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글이 연달아 게재되기도 했다.

본교는 온라인 강의 수강 정원을

무제한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팀원은 강의를 듣는 학생 수에 따라 강의의 질이 차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교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에서는 퀴즈, 시험, 토론, 팀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모든 활동이 모두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이라며 “교수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물리적으로 학생과 교수의 소통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의 인원수를 늘렸을 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온라인 강좌 내의 인원을 늘리기 보다는 강좌 수를 늘려서 교과지도를 받도록 적정규모의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해 온라인 강의로 전환된 후 수강 정원을 늘린 학교도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후 강의 당 수강 인원을 20%씩 늘렸다.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의 수강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수강 만족도를 높이려는 차원이었다. 인원을 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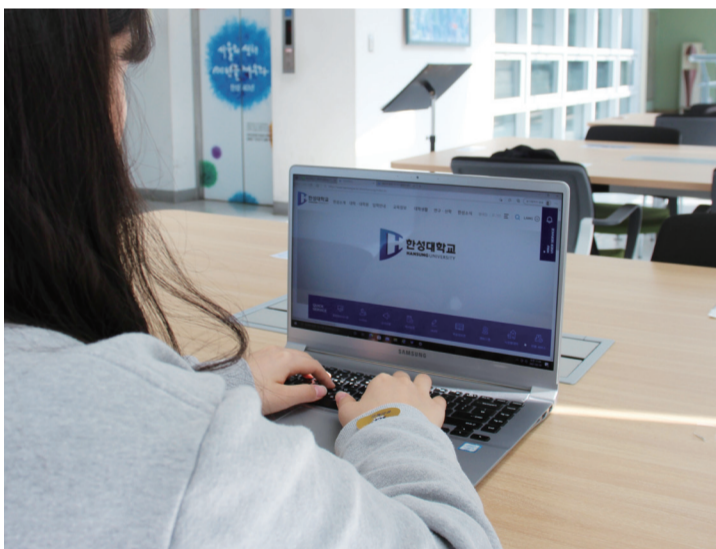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교수가 수강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학기가 끝난 후 재학생은 다음 학기에도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온라인 강의 인원을 증원한 것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본교는 수강신청이 끝난 후 1학년을 제외한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도 1학기 수강신청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2, 3, 4학년 학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이나 교양과목 수강신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 팀원은 “조사를 통해 학생이 듣고 싶어 하는 강의를 조금이라도 더 들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다음 학기부터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팀장은 “수강인원 부족 현상이 심한 과목이 파악되면 학사운영팀에 문의를 달라”며 “확인 후 해당 학기나 다음 학기부터 분반 수나 강좌 별 인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노은 기자 irngold20@naver.com

## 본교 홈페이지 개편, 무엇이 달라졌을까



▲새롭게 변한 본교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육정보 카테고리, 한성이슈 및 SNS 채널 연계 등 새로운 기능도 찾아볼 수 있다.

기존 메뉴에서 교육정보 카테고리 신설됐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수업, 학적, 졸업, 장학 등 재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공식 홈페이지 하단에는 한성이슈 및 SNS 채널 연계 시스템이 추가됐다. 사용자는 홈페이지 내에서 본교의 대내외적인 행사 및 동문 소식과 본교 공식 SNS 채널을 볼 수 있다.

대학 트랙 홈페이지도 외관 디자인과 기능이 변경됐다. 대학 트랙 홈페이지는 각 대학 및 트랙 홈페이지 내 구조를 동일하게 구성했다.

내부 디자인은 각 대학 및 트랙의 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김준호(홍보팀) 팀원은 “트랙 간 이동이 자유로운 본교 특성상 대학 및 트랙 홈페이지 구조가 다를 경우, 학생이 이용하기 어려울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트랙 홈페이지에는 교수정보제공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트랙 홈페이지의 교수정보제공 기능은 교수 재량이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본교가 직접 교수 별 교수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해당 기능이 추가되면 사용자는 교수의 고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개편 목적에 대해 김병일

(경영기획팀) 팀원은 “본교 홈페이지는 노후화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사용자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직 해결할 부분도 남아있다. 현재 홈페이지 내 통합검색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동현(정보화팀) 팀원은 “기관 홈페이지가 모두 개편되는 6월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교는 학내 구성원의 건의사항을 받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공개 전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홈페이지에 반영됐으면 하는 서비스를 묻는 질문에 1위 답변이 셔틀버스 실시간 운행정보였다. 본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셔틀버스 실시간 운행정보 서비스를 추후에 제공할 예정이다.

본교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HSU 홈페이지 구축’ 학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학내구성원의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 홈페이지 TF팀에 전달한다. 홈페이지 TF팀은 전달받은 건의사항을 보완 및 수정할 계획이다. 건의사항은 전화와 E-MAIL로 받고 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 홈페이지 내 규정관리시스템 도입돼

지난 2일, 본교는 홈페이지에서 규정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규정관리시스템은 학칙이나 학사행정과 같은 규정정보를 사용자가 관리 및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규정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규정정보검색 ▲입안편집 ▲문서변환 ▲미리보기 등이다. 규정정보검색은 원하는 규정정보를 키워드별, 부서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각 규정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는 규정정보검색 기능을 통해 문서 다운로드 없이 규정정보를 찾을 수 있다.

입안편집은 교내 각 행정부서가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안이 있을 시 필요한 서식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정해진 서식에

규정의 내용을 일일이 작성했던 기존과 달리 지금은 바꾸고자 하는 내용만 변경할 수 있다.

문서변환은 규정의 제·개정 후, 문서를 시스템에 이관하기 위해 한글, PDF, XML 형식으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이다. 기존 규정집에서는 필요한 서식이 한글 및 PDF 파일로만 제공돼, 사용자가 직접 문서를 원하는 형식으로 변환해야 했다.

미리보기는 규정에 별표 및 별지 같은 추가 정보가 있을 시 서식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 규정집에서는 규정문서에 별표 및 별지 서식이 포함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야 했다.

박지연 기자  
pjy0314@hansung.ac.kr

## 학술정보관 5기 서포터즈 모집해

학술정보관에서 오는 26일까지 학술정보관 5기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명이다. 본교 재학생 누구나 서포터즈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작성한 뒤 모집공고 게시물에 기재된 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모집 공고는 본교 홈페이지 비교과 공지사항과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은 서류평가, 면접,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은 서류평가에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다. 합격자 발표는 4월 5일에 진행되며,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학술정보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SNS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홍보 활동은 학술정보관 SNS 계정과 서포터즈의

개인 SNS 계정에서 이뤄진다. 서포터즈는 홍보 외에도 SNS 관리 보조, 카드뉴스 제작, 인터뷰·행사 보조 등을 하게 된다.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비교과 포인트 50pt가 지급된다.

이영원(학술정보관) 팀원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서포터즈를 통해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일어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4기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오승민(기계 4) 학생은 “많은 사람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SNS를 통해 콘텐츠 제작 능력을 기를 수 있어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 본교 AI 면접실 개관해



지난 3월 11일, 상상관 지하 1층에 AI 면접실이 개관했다. 학생은 AI 면접실에서 지원하는 노트북, 마이크 등을 이용해 화상면접을 연습할 수 있다.

AI 면접실은 휴학생을 포함한 본교 학생과 졸업생 누구나 사

용 가능하다. 사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한성-e-포터폴리오(HOPE)에서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하루 한 번 가능하며, 총 4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 청년 빠진 청년 주거정책, 집을 넘어 살 곳이 필요한 청년

의식주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이다. 많은 사람이 '주'를 '집(街)'으로 이해하지만, 주는 '살(住)'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살 곳은 단순한 주택을 넘어서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청년은 21세기 주거취약계층으로 새롭게 대두됐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모든 어려움을 감싸기엔 역부족이다.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이하 후보자)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새로운 공약은 청년에게 살 곳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 현실성 없는 주택 공급

살 곳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후보자들은 '주거 공급'으로 답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년간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에 신규 주택 총 36만호를,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상생주택'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해 5년간 총 74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의 주택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지난 1월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표한 '2020년 3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최종 청약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총 96가구를 공급했지만 신청자는 8,335명이었다. 청약 경쟁률은 86.8대 1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행복주택은 2030세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학교 및 직장까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공공임대주택도 상황이 비슷하다.

주택의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후보들의 부동산정책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환(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순 물량 채우기에 급급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먼저 박 후보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대해 "토지임대부 방식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기존 가구를 감안하지 않은 공급물량"이라며,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어디로 이주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의 상생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방안이기 때문에 민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활용도가 낮은 토지이다 보니 공급 속도만 높이다가 실질적인 수요가 없는 곳에 주택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30만호 공급은 거의 불가능하다. 종상향\*을 통한 10만호 공급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용지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후보자들은 용지 마련 방법으로 고속도로 및 철도의 지하화를 강조했다. 손재영(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로나 철도는 면적이 좁다. 위치도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지금 나온 공약은 자금 및 용지 마련에 대한 실행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아도 1년에 2만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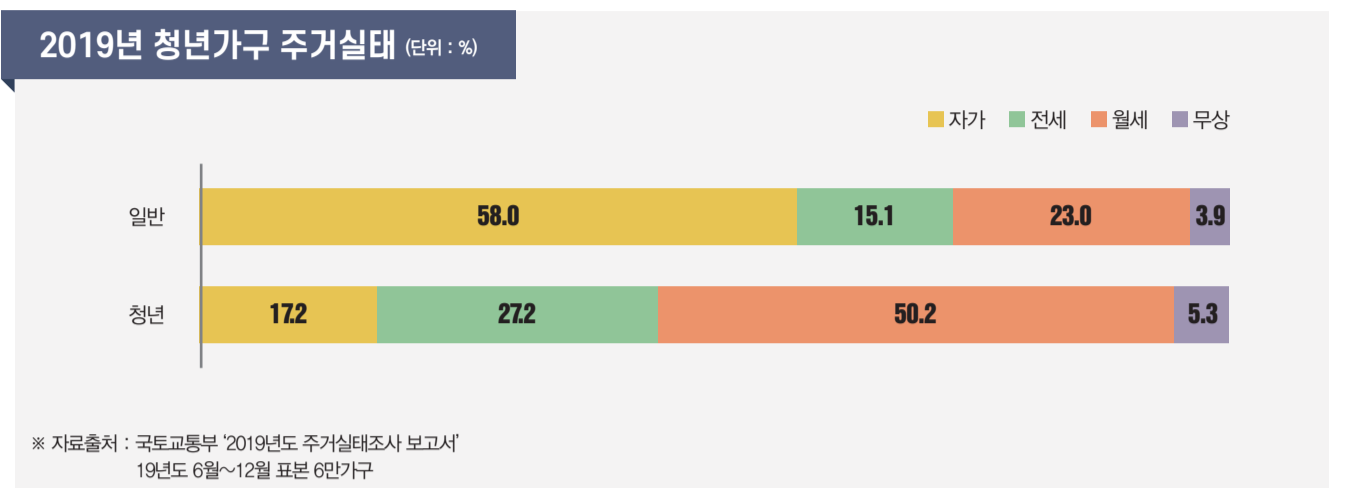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약속

후보자들은 살 곳을 마련하려는 청년을

위해 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대부분의 청년이 집을 빌려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 중 77.4%가 임차가구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청년에게 보증금과 월세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에서 시행한 청년월세지원에는 총 3만 4,201명이 신청했다. 모집인원은 5천 명이었던 신청 청년의 평균 소득은 131만 6천 원이며, 평균 지출 월세는 37만 3천 원이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이나 월세도 당장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에게는 큰 부담이다. 김가원(민달팽이유니온 홍보기획팀) 팀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집이 필요한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공약으로 대표적인 것은 우상호(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 후보가 제시한 청년주택바우처 제도다. 청년주택바우처는 청년층으로 대상을 한정해서 진행되는 제도

라는 점에서 현 제도와 차별점을 갖고 있다. 우 후보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150%까지 최대 30만원 내에서 청년주택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쿠폰 교환방법으로 월세와 관리비 일부를 지

원하는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지금도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소정의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로 나뉜다. 일반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기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 1천만 원)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이 1억 6천만 원 이하인 가구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특정바우처 제도는 일반바우처 대상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의 관건은 임대인이 알 수 없는 형태로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원금에 맞춰 임대인이 주거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쪽방촌의 경우, 지원금 상승에 따라 임대료가 같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살만한 곳이 필요한 청년

후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집을 만들고 주거비를 지원할지에 대해 답했지만, 대답은 충분하지 않다. 주택 공급에는 현실성 있는 시행계획이 있어야 하며, 주택바우처 등 지원금 관련 공약도 구체화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살만한 곳을 만들지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온 어떤 후보도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책 외에, 주거환경 개선 등 다른 청년 주거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년의 주거환경은 심각한 상황이다. 비주택·위반건축물 등 비적정 주거 시설이나, 곰팡이와 누수가 심각한 낙후 시설에 살고 있는 청년도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청년 가구 중 총 45만 가구가 주거민관상태로 밝혀졌다. 주거민관 상태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나 지하 혹은 옥상·비닐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 안정성, 주거비 부담 가능성, 살기 적합한 가구 상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도입한 기준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건 집이 아니라 살 곳이다. 김 팀장은 "집을 소유해야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집을 임차해 살아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청년이 겪는 대부분의 주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상향 : 1·2층 일반주거지역을 2·3층으로 높이는 것

## 서울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박영선**

- 01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
- 02 1인 주택·오피스·스마트팜 등 복합 기능을 갖춘 '21분 컴팩트 시티' 조성

---

**오세훈**

- 01 서울 신규주택 총 36만호 공급
- 02 민간분양주택 18만5000호, 공공임대주택 7만호, 모아주택 3만호
- 03 전세시장 안정화 위해 '상생주택' 7만호 공급

---

**안철수**

- 01 청년주택바우처·보증금 프리 제도 도입
- 02 역세권·준공업지역·유휴부지 개발로 40만호 공급
- 03 국철·전철 지하화로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호 건설
- 04 신혼부부 청년주택 우선입주 및 10년 거주권 보장

---

**우상호**

- 01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 02 10년 간 10평대 '청년 공공임대'
- 03 20년 간 20평대 '신혼부부 공공전세'
- 04 강변과 지상철 위에 공공주택 타운 조성

---

**나경원**

- 01 10년간 70만호 공급
- 02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 이 더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학교 청소노동자는 아침부터 강의실 소독을 진행한다. 학내 구성원의 배달 서비스 이용률도 증가해 분리수거장이 일회용품 쓰레기로 가득하다. 누구보다 분주한 청소노동자의 하루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 학교 건물로 들어간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 누구보다 분주한 그들의 아침

오전 6시 58분, 진리관 3층 출입문 앞에 도착한다. 오전 수업 시작 전까지 청소를 끝 내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곧바로 진리관 출입구 뒤에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꺼내 컴퓨터 실습실 317호로 들어간다. 대략 30개 정도의 컴퓨터가 보인다.

청소작업자가 실습실 복도와 의자 밑에 있는 먼지를 리스킹 걸레로 정리한다. 리스킹 걸레는 기름걸레라고도 불리며, 넓은 공간을 신속히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업한 뒤에 남은 먼지와 쓰레기는 빗자루를 이용해 쓰레받기에 담는다. 쓰레받기를 확인해보니 다 마신 팔고당 커피컵, 종이, 비닐봉지가 보인다. 마무리로 대걸레를 사용해 바닥을 닦는다.

청소를 끝낸 후, 실습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작업자가 말한다. "아직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바닥과 책상에 붙어 있는 문진확인 스티커를 제거해야 돼요. 교문에서 받은 문진확인 스티커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이 많아 업무가 더 늘어났어요." 실습실을 돌아다니며 바닥과 책상을 살펴보니 문진확인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져 있다. 곧바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바닥에 내려둔 후, 낡직한 칼을 이용해 바닥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한다.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간 탓에 스티커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컴퓨터 실습실 청소가 끝난 후, 진리관 3층 패션 실습실로 들어간다. 마네킹, 긴 책상, 실, 바늘 등이 보인다. 리스킹 걸레를 이용해 먼지, 실뭉치 등을 모으고 커피컵, 사탕봉지 등 쓰레기를 쓰레받기에 담는다. 강의실 5곳의 청소를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다.

강의실 청소를 마친 후에 대걸레가 있는 화장실로 향한다. 화장실 마지막 칸으로 가니 대걸레 2개가 보인다. 걸레를 물에 담근 후에 물기를 제거해준다. 물기가 많으면 이용자가 복도를 이용할 때 위험하다.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 끝에서부터 처음까지 구석 구석 닦는다. 마지막으로 얼룩이 있는 부분을 닦아준 후에 작업을 마무리한다. 긴 복도를 3번 정도 오갔더니 등이 땀으로 뻘뻘 났다.

3층 청소가 끝나고 잠시 청소도구를 손질한다. 리스킹 걸레에 붙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작은 수세미를 이용해 먼지를 떼어낸다. 그 순간, 작업자의 장갑에 뭔가가



반짝인다. 실습실 청소를 하면서 리스킹 걸레에 바늘이 붙은 것이다. 작업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떼어내며 말한다. "실습실 청소를 하다보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해요."

다음 구역인 학생관을 청소하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간다. 작업자를 따라 계단을 이용해 2층까지 걸어 올라간다. 복도 맨 끝에 위치한 교수 사무실로 향한다. 리스킹 걸레를 들고 먼지와 작은 쓰레기를 모은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해 큰 쓰레기를 청소한다. 손걸레를 들고 책상으로 이동한다. 키보드를 닦고, 책상 유리에 붙은 지문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가운데 위치한

긴 유리 책상도 닦는다.

사무실에서 나와 리스킹 걸레를 들고 복도로 향한다. 복도 곳곳에 있는 먼지를 모은 후에 한 곳에 털어내는 작업을 반복한다. 모인 먼지와 작은 쓰레기를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해 쓰레기통에 버린다.

2층 작업을 마친 후에 다시 1층으로 장비를 들고 이동한다. 한 손에는 리스킹 걸레, 다른 한쪽에는 대걸레. 양손을 계속 들고 다녔더니 어깨가 빠근하다.

1층에 도착해 컴퓨터 실습실로 들어간다. 실습실 청소를 할 때는 실습실 문을 열어두고 작업을 진행한다. 청소도구 등을

사용할 때 용이하기 때문이다. 학생관 1층은 실습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계돼 있어 고정이 잘 되지 않는다. 의자를 이용해보지만 문이 계속해서 닫힌다. 문 사이에 의자를 두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다. 의자 위로 넘어다니는 식으로 작업을 하니 몸에 더 무리가 간다. 키보드를 닦고 있던 중 한 여학생이 강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문 사이에 의자가 있어서 강의실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곧바로 손걸레를 책상에 내려둔 후에 문 앞으로 뛰어가 의자를 치운다. 아직 청소 중이냐고 물어보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조금해진다. 오전 수업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인다.

수업 전까지 청소를 마치고, 다음 작업은 분리수거다. 진리관 1층 분리수거장에 들어가니 청소작업자 2명이 보인다. 그들은 분리수거장 구석에 있는 파란색 통과 일반쓰레기 봉지 뒤에 세워져 있는 나무로 된 판을 가져온다. 파란색 통 위에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쓰레기 봉지를 올린다. 바닥에 쓰레기 봉지를 두고 작업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서 작업자들이 고안한 방법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레기 분류작업을 해야 해서 쓰레기 봉지를 바다에 두고 작업하면 허리가 아파요."

작업자들은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시작한다. 하얀색 봉지를 열어보니 커피컵, 음식이 담겨있는 도시락, 젖은 종이, 유리로 된 음료수 병이 보인다.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회용품이다. "일회용품 봉지는 하루에도 몇 봉지씩 나와요." 예전에는 일회용품을 따로 모으지 않았지만, 지금은

일회용컵이 너무 많이 나와 비닐봉투에 따로 모아서 처리한다. 카페에서 나오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이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이 남은 커피를 그대로 쓰레기 봉지에 버려 작업자가 컵 뚜껑을 열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용물을 쏟아야 한다.

한 청소작업자가 쓰레기 봉지 3개를 양손에 들고 걸어오고 있다. 곧바로 파란색 통 위에 나무판을 깔아 분류작업을 준비한다. 봉지를 열자마자 담배 냄새가 마스크 안으로 들어와 기침이 나온다. 머리가 어지럽다. "오전에 건물 옥상, 진리관, 학생관 사이에 마련돼 있는 흡연부스도 청소하고 있어요. 재떨이에 있는 쓰레기도 담아야 하니 작업할 때 담배 냄새가 심해요."

대략 다섯 봉지 정도 작업을 하던 중 특쓰는 냄새가 분리수거장을 가득 채운다. 봉지를 열어보니 도시락을 시켰을 때 나오는 김치가 들어있다. 한숨이 나온다. 곧바로 분리수거장 입구 앞에 위치한 파란색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간다.

김치가 담겨 있는 통을 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지만, 고무장갑을 착용해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다. 대략 3분 정도 지나 드디어 뚜껑을 연다. 숨을 참고 쓰레기통을 들어올린 후에 김치를 버린다. 대략 30분 정도 음식물 냄새를 계속 맡으며 작업하니 속이 좋지 않다.

오전에 처음으로 작업한 쓰레기의 양만 8봉지다. 분류작업을 끝내니 음식물 냄새로 머리가 어지럽다. 힘들어하는 기자의 모습에 작업자가 한마디 건넨다. "힘들죠?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아침이 분주하게 지나간다. 청소는 이제 시작됐을 뿐이지만.



▲쓰레기 봉지를 파란통과 나무판에 올려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컴퓨터 실습실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학내 구성원이 아무데나 붙인 문진확인 스티커다.

“정해져 있는 출근 시간은 7시 30분이지만, 그때 작업을 시작하면 일을 다 끝낼 수 없어요.”

# 폭력에 짓밟힌 피해자, 폭로 없이 일어서려면

지난 2월 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교 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흥국생명에서 배구선수로 뛰고 있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행위가 서술돼 있었다. 지금부터 1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다른 학교폭력 피해자도 유명인에게 당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모두 수년 전에 당한 학교폭력이다.

피해자는 왜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피해사실을 폭로할까? 말할 곳이 없었을 수도 있다. 2차 피해가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도움받는 방법을 알 수 없었던 건 아닐까.

## 흔자 2,149명을 감당하는 전문상담교사

우리나라는 전문상담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나 지역 교육청 산하 상담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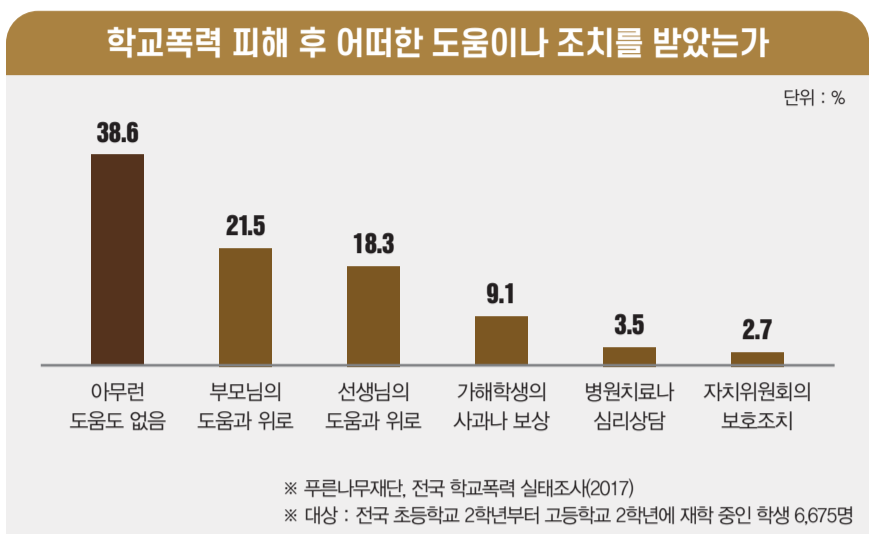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근절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준다. 2011년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강동구 천일중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됐을 때 열리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배치 전과 비교하여 10분의 1로 줄었다.

전문상담교사는 해외에서도 사용하는 제도이다. 독일은 거의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다. 일본은 임상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을 전공한 심리전문가를 스쿨카운슬러로 배치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문상담교사가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9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는 초등학교 6,023개교에 365명(6.06%), 중학교 3,204개교에 1,303명(40.66%), 고등학교 2,341개교에 869명(37.12%)이 배치되어 있다. 540만명이 넘는 전체 학생 수를 생각하면, 전문상담교사 한 명당 2,149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한 원인으로 교육부 예산의 한계를 꼽았다. 김은숙(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교과·비교과 교사 정원을 분배하는데, 전문상담교사에 할당되는 정원은 적다"며 "정원 분배가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문상담교사는 교내에 한 명인 경우가 대다수다. 김 교사는 "빈자리가 생겨도 교과목 교사의 뒤편으로 돌아간다. 2009년부터 임용을 시작한 전문상담교사는 다른 교사집단에 비해 힘이 약해 정원 분배에서 불리하다"고



인원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장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는 교육부와 학교 안에 전문상담교사를 담당하는 상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은 "아직 교육부에 고유의 학교상담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밝혔다. 김 교사는 "교육부의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조정하려면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가해자 주변에 방치된 피해자

학교폭력은 처분 후에도 2차 피해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라는 공간에 함께 있을 경우 언제든 보복행위 이뤄질 수 있다. 2017년에 있었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보복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A(14) 양이 폭행 사실을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가했다.

보복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떼어줘야 한다.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둘을 떼어놓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결정한다. 처분내용은 1~10호까지 있는데, 여기서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루어진다. 8호 이상의 처분은 학폭위의 학교폭력 사안 점수가 16점 이상일 때 받는다.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에 각각 0~4점씩 줄 수 있으므로, 네 개 항목이 모두 높은 점수가 나와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학 조치 외에도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종훈(홍익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전학 조치에 앞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복행위 외에도 다른 2차 피해 문제가 있다. 앞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 동영상이 퍼지고 피해자의 폭행

당한 얼굴이 회화화되어 인터넷 상에 떠도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포함해, 피해사실이 외부로 왜곡되면서 발생하는 피해 역시 모두 2차 피해로 볼 수 있다.

전문가는 2차 피해의 원인을 학생의 공동체 의식 부족으로 설명한다. 푸른나무재단 이선영 팀장은 "방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방어자로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 2차 피해는 목격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 주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2019)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및 학급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강화에 나서야 하며, 나아가 피해학생의 치유 및 지원을 위해 현재 안전공제회 등 선치료비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는 학생

교육부는 2020년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 초기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만 하면 해당 대응방안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제도나 대응방안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아동 인권 보고대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후 어떤 도움이나 조치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는 답변이 38.6%로 가장 많았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를 살펴보자. 교육부는 해당조사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인지도를 점검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기관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제도를 아는 사람이 학생이 24.1%, 학부모 및 관계자가 43.5%에 그쳤다.

학생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용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안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기당 1회 이상 반드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알릴 좋은 기회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배포한 「2020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예방자료」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내용이 없다. 교육부의 자료도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2020년 6월부터 배포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에도 학교안전공제회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제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한 주요한 제도와 지원절차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 발생 시 안전공제회 등 피해자를 위한 정보 등도 제공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학교폭력 대처, 피해자 중심으로

우리 사회는 가해자에 관심이 많다.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되면서 가해자 처벌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 팀장은 "2011년에 대구에서 피해학생이 자살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대폭 강화됐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처벌만큼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도 중요한 문제다. 전문상담교사 보강,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제도 홍보 등 피해자를 위해 개선할 점이 많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지속 확대하며 피해발생 초기부터 보호조치 이후 사후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치유·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폭로가 더 이상 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박한석 기자

hansok@hansung.ac.kr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처분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처분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처분3 학교에서의 봉사
- 처분4 사회봉사
- 처분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처분6 출석정지
- 처분7 학급교체
- 처분8 전학
- 처분9 퇴학처분

실질적인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이루어지는 단계



신 기자와 떠나는  
문화여행



요즘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 작품의 온전한 의미는 보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해석은 여러분의 몫이다. 나만의 해석을 찾기 위해, 문화 여행을 떠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을 경험한다. 스스로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선의 경쟁을 펼친다. 만약 경쟁의 중심에 질투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그리고 경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타인의 몰락이라면, 그 끝은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 여행지는 질투로 얼룩진 경쟁이 가득한 세상이다.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 정상을 향한 질투의 시선

여자 세 명이 건물로 들어간다. 나란히 붙어있는 두 개의 엘리베이터에는 LOW ZONE과 HIGH ZONE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LOW ZONE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선 두 여자는 HIGH ZONE으로 향하는 여자를 향해 허리 숙여 공손한 인사를 건넨다. HIGH ZONE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여자는 당연한 듯 인사를 받으며 자리를 떠난다.

### 천상의 세계

여자들이 들어간 건물은 헤라펠리스라는 초호화 아파트다. 주민들은 성공한 성약가, 부동산으로 많은 재산을 축적한 CEO, 재단 이사장, 지역 구 국회의원 등 모두 재력, 권력,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입주 승인을 받거나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등의 입주 절차가 정해져 있다. 논란이 되는 입주민이 들어오면, 입주자들이 투표를 통해 입주 허가를 철회할 수도 있다.



▲헤라펠리스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

헤라펠리스에 사는 아이는 명문 고등학교에 다닌다. 고등학교 안에서도 헤라펠리스에 거주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무리가 나뉜다. 심지어 헤라펠리스 입주자를 위한 대학입시 특별반이 존재한다.

엄청난 권력과 재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모여 살며 특권을 누리는 호화로운 건축물. 헤라펠리스는 '헤라의 성'이라는 이름에 맞게 신들이 사는 천상의 세계처럼 보인다.

### 신들의 여왕

한 여자가 화려한 엘리베이터 앞에 선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카드키를 꺼낸다. 카드를 찍은 여자는 100층 버튼을 누른다. 여자가 탄 엘리베이터는 곧장 헤라펠리스의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로 향한다. 헤라펠리스의 가장 위에 사는 여자는 입주민 사이에서 '퀸'으로 여겨진다.

퀸은 왜 존재할까?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 가치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를 가릴 필요가 있을까? 퀸은 이름만 있을 뿐, 실제 여왕처럼 다른 입주민을 부리거나 구속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입주민들은 퀸이 되길 소망하거나, 퀸을 경외한다. 더 재밌는 건 입주자들이 최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열을 가린다는 점이다.

헤라펠리스에는 서로의 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많다. 건물 안에는 LOW ZONE과 HIGH ZONE, 100층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존재한다.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와 메이드용 엘리베이터도 구분돼 있다. 특정 층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카드키도 필요하다.

헤라펠리스 입주민의 모습은 '강약약강'이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린다. 자신보다 높은 층에 사는 사람에게서는 굽신거리면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을 깔본다. 하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헤라펠리스에 입주하려고 하자,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이란 결점이 없는 존재다. 신이 서로 우열을 가리는 건 허무한 일이다. 그럼에도 헤라펠리스의 신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 사회의 경쟁에서 승리해 천상의 세계에 도착했음에도 왜 경쟁을 멈추지 않을까? 경쟁이 계속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광기에 사로잡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여자

### 질투의 화신

HIGH ZONE으로 향한 여자가 입주민 모임을 열었다. 입주민 사이에서 주인공이 될 자신을 기대하는 여자. 하필 퀸이 여자가 준비한 디저트와 똑같은 디저트를 선물로 들고 나타났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퀸이 선물한 디저트를 극찬한다. 그 모습을 본 여자는 자신의 디저트를 싱크대에 던져버린다.

질투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또는 그 감정이 고양된 격렬한 증오나 적의를 말한다. 개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나 두려움, 혹은 불안이 질투를 만든다. 여자는 85층에 사는 모습을 뽐내며, 잘 나가는 자신의 근황을 자랑하고 싶었다. 여자는 퀸에게 파티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혹은 이미 빼앗겼다는 생각에 증오를 느낀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 하는 투쟁. 헤라펠리스의 주민들이 경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사회에서 했던 경쟁에 관심이 없어 헤라펠리스 안까지 침투한 것일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헤라펠리스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중심에 질투가 있다는 사실이다.

### 괴물이 된 젤로스

헤라펠리스의 경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의 모습과 다르다. 여기엔 선의가 없다. 나에게만 있고 다른 이에게 있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질투의 본질이다. 질투의 경쟁에 들어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인의 것을 빼앗고, 타인을 꺾어내리는데 최선을 다한다.

헤라펠리스의 주민들은 능력, 권력, 재력, 명예 등 모든 경쟁의 조건을 풍족하게 갖고 있다. 현대사회의 모든 특권이 모여 있다는 환경과 질투라는 이유가 만나서 일으키는 화학작용은 경악스러운 결과로 드라마에 나타난다.

질투에 사로잡힌 여자는 점점 변해간다. 퀸의 자리를 갖기 위해 퀸의 남편을 유혹하겠다는 극단적인 수를 생각한다. 자신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계속해서 비윤리적인 행동과 떳떳하지 못한 선택을 합리화한다. 경쟁의 선의와 가치를 잊은 채 빈자리만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괴물의 모습이다.

괴물은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파괴한다. 주민들은 모든 일이 끝나고 어떤 풍경을 보게 될까? 정상에 도착하더라도 앞에 펼쳐진 광경이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다.



· 삼 학 송 ·

## E등급의 근면함

2023년부터 본교에서는 더 이상 교사를 꿈꿀 수 없게 됐다. 지난 2월 23일, 교육부가 진행한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교원평가)에서 본교는 E등급을 받았다. 교원평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대학은 평가 결과로 나온 등급에 맞춰 교직과정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본교는 2016년 4주기 교원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올해 E등급을 받아 교직과정을 폐지하게 됐다.

4주기 교원평가 결과가 나온 후 본교는 교직과정 정원을 반으로 줄였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D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본교는 본교의 점수와 교원평가를 받은 전국 대학교 평균 점수를 비교한 내용을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바 있다.

본교는 교원평가 결과에 대해 “교원 수를 줄이려는 교육부의 정책상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다. 강제적으로 교직과정이 폐지된 것과 인원이 점차 줄어들어 자체 폐지된 것은 엄연히 다르다.

본교는 과거 비슷한 평가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다. 본교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역량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재정지원제한이 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현재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당시 교육부는 D등급 이하 대학에 신입생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제한, 전체 정원 중 10% 감축, 신규 재정지원사업 참가 자격 박탈 등 강도 높은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내렸다. 본교는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랙제 도입, 장학금 확대, 상상관 건축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다행히 성과가 있었다. 본교는

2018년에 실시된 2주기 역량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재정지원제한 대상에서 벗어났다.

역량평가에서 보였던 노력에 비하면, 교원평가를 대하는 본교의 태도는 매우 안일하다. 결과가 나온 이유를 살펴보는 커닝 결과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본지는 평가지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본교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교직과정 담당자는 “결과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평가가 역량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됐다고 설명했다. 역량평가와 교원평가 모두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맞춰 대학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교원평가는 교육대학원, 사범대학교, 교직과정 등을 점검하고, 역량평가는 이외 나머지 대학을 살펴본다. 교원평가는 역량평가의 다른 버전인 셈이다.

교원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곳이 하나 더 있다. D등급을 받은 대학원이다. 교직과정이 없어진 학부처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면, 대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 본교 교육대학원에는 현재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교육행정&리더십전공이 개설된 상태다. 본교에서 폐지되는 2개의 교직과정 대신 교육대학원 내 새로운 교직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무엇보다 D등급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교직이수 담당자는 “이수 학생 수가 적고, 평가 결과가 학교에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공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에게 결과를 숨긴다고 본교가 E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결과에 대한 안일한 태도보다 대책을 세우기 위한 근면함을 기대한다.

박희연 편집국장



조기자의 시선

“쓰레기 분리수거 잊으셨나요?”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 봉지 안에 종이컵, 택배상자, 비닐 등이 뒤섞여 있다. 청소노동자는 학내 구성원이 분류하지 않은 채 버린 쓰레기 봉지에서 쓰레기를 꺼내 분리수거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그들은 이 작업에 하루의 절반 이상 시간을 보낸다.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 작업을 잊지 않길 바란다. 조정은 기자

### ■ 기자수첩

2021학년도 입시는 지방소재 대학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신입생 수를 채우기 위해 수능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부터 장학금 공세를 펼치는 대학까지 있었지만 결국 신입생 총원 미달을 막지 못했다. 서울선호현상과 학령인구감소가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다.

필자는 지방거점국립대학교에서 인프라 부족 현상을 느끼고 반수를 했다. 대외활동이나 인턴 등 소위 스펙이 될 수 있는 경험의 기회, 자격증과 학업을 위한 학원은 서울에 집중되었다. 대학진학과 동시에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 세대는 당연히 서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매년

### 어느 땅을 밟고 있더라도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순이동자 수는 2017년 1만 6,000명에서 2020년 8만 8,000명까지 증가했다. 순이동자 수는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수치다. 2020년 순유입률을 살펴보면, 20대는 서울이 1위(3.1%)로 서울선호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방소재 학교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정책이다. 이 방식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지방소재 대학의 학생을 몇 명 더 뽑는 근시안적인 대책보다는 학생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에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환경이란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지방에 구축됨을 말한다. 서울과 지방의 간극이 줄어들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동하고, 지역 경쟁력은 강화된다. 교육과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 지방대학의 체계 검토, 지방기업의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 간 불균형은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일부 지방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 누구나 어느 땅을 밟고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날을 꿈꾼다.

한혜정 기자

### ■ 의화정

## 창의성과 행복한 습관

“어느 누가 진부한 인생을 살고 싶겠니?” 내 ‘창의적 기제설계’ 강의는 이 문장에서 시작한다. 나 역시 진부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남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학이란 용어가 생길 만큼 행복은 어려운 주제다. 행복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원하던 대학에 합격해 해도, 좋은 직장에 취직이 돼도,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한 짝을 찾아도 그 행복한 감정은 얼마안 가 사라진다. 행복은 상대적이다. 그리고 행복은 선택이다.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다.

다윈의 진화론을 비롯한 근현대 과학의 발전은 삶에 대해 뭐 그리 특별한 것이 없음을 증명한다. 자신의 인생에 창조주의 대단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거나 자기애에 불과하다. 70억인자 80억인자도 모르는 세계 인구만큼 계획이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개인의 의식이 만들어 낸 희망일 뿐이다.

인생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일정 시간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한 호모 사피엔스가 소멸한다. 결국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채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끊임 없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한다. 진부한 인생이란 습관적인 것만으로 채워진 인생을 뜻한다. 어제와 같은 오늘과 오늘 같은 내일을 의미한다.

하루 24시간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습관적으로 흘러간다. 먹고 자고 배변하는 시간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의 시간.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행복한 순 없을까?

행복한 습관을 많이 갖고 있다면 남보다 행복한 인생을 산다. 알람 없이 아침에 눈뜨는 습관, 우아한 커피향을 즐기는 습관, 매일 샤워하는 습관, 하늘의 구름을 올려다보는 습관, 석양 노을을 지나치지 않는 습관, 읽을거리를 주변에 넘쳐나게 하는 습관, 항상 일상 탈출 계획을 짜는 습관, 이런 글 쓰는 습관, 행복한 습관을 만드는데 창의성이 중요하다. 행복한 습관의 발명, 진부하고 지겨운 습관의 개선에 창의성이 요구된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행복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나는 오늘도 내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계전자공학부 윤재건 교수

### ■ 낙산에 올라

## 피해자의 용기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최근 연예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증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체육계로부터 시작된 학교폭력 고발이 연예계까지 퍼졌다. 폭로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태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터뜨리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해당 연예인에게 악의를 품고 망하길 바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폭력을 당하고 바로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주변의 시선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사실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걱정을 안고 피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는 ‘이제

와서’가 아니라 ‘이제 겨우’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닐까.

2018년도에 화제였던 미투 운동에서도 많은 여성이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는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는 폭력을 당한 순간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한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고 말한다.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가 대중 매체에서 사랑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TV에서 가해자의 모습을 볼 때 과거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하는 피해자도 있다. 학창 시절에 경험한 피해는 상처로 남아 정서와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앓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대한체육회는 학교폭력이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라며 체육계 진입을 아예 막는 것은 가혹하다고 한 바 있다. 고의적인 괴롭힘을 어린 시절의 철없음으로 포장한 셈이다. 피해자는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가 아니다.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선은 피해자를 다시 아프게 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단순히 가십거리로 종결되는는 안 된다.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는 학교폭력 사건의 원인으로 해서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 주목한다. 모든 학생에게 보호의 시선이 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

조현미(사회과학 3)

### 기자사령

퇴 부장기자 김선우(II 2)  
정 기자 박현규(II 3)  
수습기자 김민찬(인문 2)

### 동정란

신재홍(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2월 25일 「글로벌시대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문화사회와 교육」 도서를 출판했다.



# 제15회 사진공모전

당신의 순간을 보여주세요

### 모집기간

3월 29일(월) ~ 5월 7일(금)

### 참가대상

본교 전 구성원(학부 · 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 주제

자유(주제에 제약 없음)

###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비교과공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① 온라인 제출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 응모작 규격 : 장축 4000px 이상의 jpg 파일

#### ② 오프라인 제출

한성대신문사(중문 우촌관 앞 IBK기업은행 건물

2층)에 직접 제출

\* 응모작 규격 : 8X10in(20.3X25.4cm) 인화 사진

###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제568호 (6월 7일 발행)

###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佳作(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5pt / 최우수작 20pt /佳作 10pt

###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박희연 편집국장 010-3412-1839

- ※ 1인당 최대 3점 응모 가능합니다.
- ※ 참가신청서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제15회 사진공모전 참가신청서'로 합니다.
- ※ 작품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작품제목].jpg'로 합니다.
- ※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의 중복지원을 불허합니다.
- ※ 스마트폰, 필름사진,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 모두 규격 준수 시 응모 가능합니다.
- ※ 포토샵 등 합성과정을 거친 사진은 불허합니다. (단, 간단한 색보정은 허용)
- ※ 제출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 ※ 최우수작이 없을 시佳作만 시상합니다.